

# 먹방, 허기진 영혼을 채우는 푸드 포르노(上)

전문가 칼럼 - 복고열풍

최태섭  
문화'불평'가



이제는 먹방이 대세라고 말하는 것  
도 새삼스러운 일이다. TV를 틀건,  
온라인에 접속하건 어디에나 먹방이  
있다. 방송의 정체성 자체가 아예 먹  
방인 프로그램도 이미 여럿이고, 드  
라마, 예능, 교양 할 것 없이 먹방이  
등장한다. 연예인들의 ‘화제의 먹방’  
이 앞 다투어 보도되고, 어떤 이들은  
음식 한 번 잘 먹은 덕에 일약 스타로  
등극하기도 했다.

따지고 보면 사실 연예인들의 먹방  
은 뒷북이다. 이미 온라인에서는 개  
인 채널로 먹방을 중계하고 그것으  
로 수익까지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  
다. 그들이 방송에서 하는 일은 음  
식을 먹으며 채팅창에 올라오는 댓  
글에 때때로 대거리를 해주는 것이  
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송  
을 보면서 ‘별풍선’(개인 방송 사이  
트 ‘아프리카TV’의 사이버 화폐)을  
쏟았다. 굳이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 
수많은 이들의 SNS에는 자신이 먹  
은 음식들을 자랑하는 사진이 반드  
시 있다. 검색엔진과 블로그가 각종  
광고와 프로모션들로 혼탁해진 틈을  
타서, SNS친구들이 제공하는 진짜  
맛집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삶의 소  
소한 지혜가 된지도 이미 오래다.

## 범람하는 ‘먹방’ 열풍 타인의 식사에 열광하는 사람들

이렇게 먹방은 음식을 먹는다는 지  
극히 원초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를,  
수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  
어지는 모종의 의례 같은 것으로 탈  
바꿈 시켰다.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  
다는 옛말이 무색하게도, 이제 사람  
들은 타인의 식사에 열광할 준비가  
되어있다.  
물론 과거에도 음식이 방송이나 미  
디어의 소재로 사용되는 일은 흔했  
다.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을 휩쓴  
웰빙 바람은 ‘잘 먹고 잘 살기’라는



슬로건으로 축약되었고, 덕분에 방  
송과 매체들은 연일 몸에도 좋고 맛  
도 좋다는 음식을 찾아내느라 혈안  
이었다.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음식을  
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일은 드  
물었다.  
이 새로운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  
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는 <고독  
한 미식가>를 꼽을 수 있겠다. 일본의  
TV도쿄에서 2012년 심야 시간에 방  
영되기 시작한 이 드라마는 현재 시  
즌 5의 방영을 앞두고 있다. 사실 일  
본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온갖  
먹방의 천국이었다.

그런데 <고독한 미식가>는 그 장  
르 안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었다. 이  
‘드라마’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등장  
인물은 주인공 하나뿐이고, 스토리  
도 ‘수입상으로 일하는 40대 독신남  
성’이 일 때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  
니다가 배가 고파지면 식당을 찾아서  
원하는 음식을 먹는다’가 전부다. 물  
론 매 회마다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  
는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도 있지만,  
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‘타인’은  
그가 방문하는 가게의 종업원이나 주  
인을 제외하면 자신만의 식사를 즐  
기는데 방해가 되는 곤란한 존재들  
일 따름이다. 즉, 드라마라는 이름을  
붙인 이 영상물에서는 이야기를 만  
들어 낼만한 모든 것들이 거의 방해  
꾼의 역할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

다. 심지어 주인공의 대사도 그가 음  
식을 먹으면서 내뱉는 독백이 거의  
대부분이다. 결국 4시즌이 다 가도록  
주인공은 그 누구와도 겸상을 하지  
않고 혼자서 밥을 먹었고, 카메라는  
그 ‘먹부림’을 세세하게 카메라에 담  
아 매 회마다 10~20분가량을 오로지  
먹는 장면으로만 채웠다. 이쯤 되면  
이것을 ‘포르노’의 일종이라고 부르  
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인다. 자극하  
는 대상이 성욕이 아니라 식욕이고,  
그래서 심의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만  
빼면 말이다.

## 식욕을 자극하는 푸드포르노 문화적 허기를 위로하다

나 역시 이런저런 먹방의 나름 열  
렬한 시청자이지만, 한 발 물러서서  
바라보면 제법 심정이 복잡하다. 가  
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에게 참  
으로 낯이 없다는 사실이다.  
계속된 불황과 그에 따른 가게 및  
노동소득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소비  
의 위축으로 이어진다. 그리고 그 소  
비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품목은  
이른바 ‘문화생활’에 대한 지출이  
다. 자꾸만 하한선을 돌파하는 통장  
잔고를 보며 영혼에 스치는 불안을  
경험한 사람이라면, 누군가와 함께  
시간을 보내거나 밖으로 나가 취미  
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

느껴질 수밖에 없다. 하지만 문화생  
활은 끊어도 밥을 끊을 수는 없는 일  
이니, 우리는 매우 경제적인 셈을 거  
쳐 음식으로 두 개의 허기를 모두 해  
결해 보려는 다소 가련한 노력에 빠  
져들게 된다.

그래서 사람들은 밥 한 끼를 위해  
검색을 하고, 줄을 서고, 정성스레 사  
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. 소문난 맛  
집 앞에 늘어서 있는 줄은 맛있는 것  
을 먹고야 말겠다는 1차원적인 의지  
일 뿐만 아니라, 직접 그 소문의 일부  
가 됨으로써 얻는 미약한 ‘문화적’  
위안에 대한 의의이기도 하다.

그리고 먹방은 이 위축된 마음을  
비집고 들어와, 가져본 적 없는 풍요  
에 대한 알레고리처럼 복스럽게 음식  
을 먹여치우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 
을 보여주며 말초적인 자극과 묘한  
위안을 건넨다.

오늘날 한국사회의 ‘소울푸드’는  
어쩌면 음식 그 자체라기보다는 양  
산되는 수많은 먹방과 먹짬들일지  
도 모른다. ‘나 잘 먹고 살고 있다’라  
는 허세와 생존신고가 절반씩 섞인  
음식의 이미지들 말이다. ‘먹기 위해  
산다’와 ‘살기 위해 먹는다’는 두 명  
제가 이 이미지들 속에서 기묘하게  
뒤섞인다. 어쩌면 먹방은 밥 한 끼도  
편안한 마음으로 먹을 수 없게 된 우  
리들을 위한 식욕증진제 같은 것이  
아닐까.

분법적 구분, 그리고 서구화가 곧 문  
명화라는 관념까지 함께 확산시켰으  
며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의 급  
격한 단절과 서구식 발전모델의 도입  
을 가져왔다.

그러나 유럽열강들의 제국주의 경  
쟁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과곡으  
로 끝나면서 계몽과 진보에 대한 믿  
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문명의 서  
구중심주의적 관념에도 변화가 생겨  
났다.

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듬해 요한 하  
위징아의 『중세의 가을』(1919)이 출  
간되었고 곧이어 마르셀 모스의 『증  
여론』(1925)이 발표되었다. 이들의  
목적은 이제까지 서구중심주의에 의  
해 배제되었던 ‘또 다른’ 문명들의  
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었다. 이러  
한 움직임은 이후 연속적으로 벌어  
진 일련의 사건들 - 대공황, 파시즘,  
제2차 세계대전, 아우슈비츠 수용소  
와 홀로코스트 등을 거치며 더욱 가  
속화되었고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  
근대서구문명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  
과 새로운 문명관에 대한 모색으로  
이어진다.

## 참여마당

지영주  
정치외교학 2014



## ‘여행’, 진지하게 고민하자

대학생들 사이에서 일정기간 동안 기사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  
는 ‘내일로’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. 성년이 돼 우리나라 곳곳을  
돌아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‘해방감’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  
문일 것이다. 몇 번의 방학동안 내일로를 통해 여행을 다녔고 이번  
여름방학에는 전공연수를 겸한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의 가치와  
그것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봤다.

먼저 먹을 것에 관한 부분이다. 해외여행을 떠나면 필수적으  
로 흔히 음식과 물갈이의 문제에 당면하곤 한다. 물갈이는 반드  
시 그곳의 물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. 하지만 음식의 경우  
에는 선택지가 있다. 라면이나 소고기 고추장 같은 한국에서 가  
져간 음식들을 먹을 수도 있고, 로컬음식을 먹는 것을 도전해 볼  
수 있다. 하지만 잘 먹어야 잘 돌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나중에는  
로컬음식을 많이 먹기보다는 나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  
었던 것 같아 조금은 아쉽다. 그 곳의 음식을 먹는 것이 그 나라  
의 생활상과 밀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. 음식  
문제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루에 3번씩 고민해야 하는 문  
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느껴졌다.

## 여행을 하며 먹는 음식, 보내는 시간, 즐기는 방식 진지한 고민을 통해 더 즐길 수 있다

또한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것 중에 큰 부분은 여행이 진지한 고  
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. 여행을 다니면 빼놓  
을 수 없는 게 ‘이동시간’이다. ‘이동시간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 
의 리듬과는 벗어난 불규칙적인 시간이 생긴다. 때로는 몇몇 사  
람들은 긴 ‘이동시간이’ 지루하다고 말하기도 한다. 하지만 항상  
지나다니는 학교 가는 길, 집으로 돌아다니는 길은 너무 익숙해  
져서 무감각하게 지나가지만 여행가서 만나는 낯선 풍경들은 지  
나온 과거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어떻게  
살아야할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.

마지막으로 여행의 방식에 대한 생각이다. 주변 사람들의 여행  
방식과 그 결과를 볼 때 아쉬운 점이 더러 있었다. 여행이 ‘휴식’  
과 ‘여유’를 오롯이 즐기기보다는 그저 그곳에 다녀왔다는 기록  
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. 유명한 장  
소에 가서 그 건물과 유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진지하  
게 그 장소에 대해 생각해보고 즐기려는 여유가 없는 것 같다. 입  
장료가 비싸다고 유적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봤다. 여행의  
가치는 주관적일지라도 사진으로 나의 여행을 ‘인증’만 하는 사  
람들의 여행을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든다.

방학은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음 방학에도 그리고 주말에  
도 여행을 떠날 것이다. 자신이 동경했던 장소, 휴식을 위한 휴양  
지로의 여행 등 다양한 여행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.  
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을 통해 조언을 해주고 싶다. 여행을 가기  
전에 로컬음식은 어떻게 먹을지 고민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여행  
에서 이동시간을 지루해하지 말고 사색할 수 있는 좋은 시간으  
로 즐겼으면 좋겠다. 그리고 여행가서 만나는 수많은 장소에 대  
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피었으면 좋겠다.

## ▶1면에서 이어짐

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상태를 의  
미하기 때문에 계몽주의 사상가들  
은 문명을 단수형으로만 사용하였  
다. 문명의 복수형이 나타나는 것은  
19세기 초 나폴레옹의 패배와 비인체  
제 이후 여러 열강들이 유럽의 주도  
권을 둘러싸고 난립하면서부터이다.  
그렇지만 복수의 다양한 문명들이  
모두 동등한 가치로 평가되었던 것은  
아니다. 가장 중요하고 우월한 문명  
은 근대유럽문명이라는 서구중심주  
의가 이때 등장하였다.

프랑수아 기조는 『유럽문명사』  
(1828)에서 근대유럽문명이 왜 특별  
한지를 이야기한다. 그는 유럽문명이  
오랜 역사를 통해 인간의 진보와 자  
유의 원리를 발전시켰고 그 결과 근  
대에 이르러서는 인류사회가 지향해  
야할 궁극적인 미래를 제시한다고 보  
았다. 따라서 근대유럽문명은 단순  
한 개별문명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의  
보편문명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 
것이 기조의 주장이었다.

이러한 관점은 19세기 후반 유럽



##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상태를 의 미하기 때문에 계몽주의 사상가 들은 문명을 단수형으로만 사용 하였다

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상태를 의  
미하기 때문에 계몽주의 사상가  
들은 문명을 단수형으로만 사용  
하였다

인들의 ‘문명화 사명’으로 이어졌다.  
아프리카와 아시아의 ‘미개인들’은  
스스로 문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  
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‘도움’이 필  
요하다는 문명화 사명은 유럽의 제  
국주의를 정당화하고 서구의 가치를  
세계에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  
되었다.

유럽의 서구중심주의적 문명관은  
제국주의를 통해 비유럽지역에도 전  
파되었다.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지식  
인들이 civilisation을 중국 고전에서  
빌린 文明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하여  
한국과 중국에 확산시켰다. 이들은  
번역어뿐만 아니라 문명과 야만의 이

2015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

2015학년도 2학기 자유선택과목 '사회봉사 123'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취득 가능 학점

가. 성적부여 방식: P / F(2014학년도 부터 P/F 모두 성적표에 기재)

나. 최대 취득가능학점: 학기당 1학점, 총 2학점 (단,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)

2.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 (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)

항목	2012 2학기 이전	2013~1학기부터
취득요건	온라인캠퍼스 이수 후 봉사 활동 30시간으로 학점 인정	제휴업체 관계없이 입학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30시간으로 학점 인정
인정기준	국공립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	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 불가능 ① 교외봉사: 1365 자원봉사포털(www.1365.go.kr),서울동행프로젝트(http://donghaeng.seoul.go.kr),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(www.vms.or.kr) 사이트를 통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② 교내봉사: 교내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봉사단, 취업진로지원센터, 사전 협의 되어야 함을 실시한 경우 ③ 한일: 입학 후 실시한 본인의 한일중서 원본을 기증한 경우(한일중서 원본 이외 다른 서류 제출 불가)

문의 : 취업진로지원처(031-201-3009)

3.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 및 실적등록신청

구분	교과목 이수 (취업진로지원센터)	실적등록
대상	2015-2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	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
서류제출기간	2015년 11월 25일(월) ~ 2015년 11월 27일(금) 17:00까지 *휴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	
제출서류	1. 학점인정신청서	1. 실적등록 신청서
	2.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	
	3. 소견문	-

제출서류양식은 <http://service.khu.ac.kr/> 접속 후 정보마당-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

4. 기타 세부사항

가. 봉사시간은 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한다.(같은 날 실시한 한일+봉사활동 실적 제출할 경우도 적용)

나. 한일중서 기준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한일에 한하여,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 시간 중 총 16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며 연도별 인정시간 기준은 아래와 같다

구분	2006. 2. 28 이전	2006. 3. 1~2011. 2. 28	2011. 3. 1 이후
한일중 1명당 인정시간	15	8	4

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